KR 상생뉴스

호남고속열차 시운전 착수

- 차량 성능 확인 후 2014년 말 호남고속선 투입 -

기술본부(본부장 임영록)는 호남고속열차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11월 29일부터 경부고속철도 운행선로에서 열차가 운행되지 않는 심야시간대에 시운전에 돌입했다.

호남고속철도에 운행할 고속차량은 공단이 사업비 7360억원 중 채권으로 50%를 부담하여 22편성(220량)을 구매하는데, 지난해 4월 제작에 착수하여 차량조립 및 공장시험을 거쳐 올해 11월 19일에 1호 편성 차량이 출고됐다.

차량은 약 1년간 경부 및 호남 고속선에서 10만km 이상 시운전을 통해 차량 성능을 충분히 확인한 후 2014년 말부터 호남고속선에 순차 투입된다.

시운전을 통해 열차의 주행 및 제동시험 등 총 16개 분야 123개 항목에 대한 성능을 시험하며, 이후 양산되는 열차(2호~22호 열차)도 2014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시운전에 착수하여 성능을 확인할 계획이다.

호남고속차량은 기존 KTX-산천의 운행 장애와 하자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모터블록에 모듈형 IGBT 반도체 소자 적용 ▲제어전원 공급장치 완전 모듈화 ▲동력전달장치 성능개선 등 290여 가지를 개선하여 차량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대폭 높였으며 이번 시운전을 통해 개선이 제대로 됐는지, 미흡한 사항이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계획이다.

본부 관계자는 "안전하고 편안한 고속차량이 운행될 수 있도록 차량성능을 철저히 확인하겠다"며,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서울에서 목포까지 현재 3시간 11분 소요에서 2시간 5분(1시간 6분 단축)에 이동이 가능하여 국민 교통편익 증대는 물론 호남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철도선로변 소음진동 저감 연구 본격 착수

- 선로변 거주 주민들의 생활복지 향상에 기여 -

연구원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철도선로변 지속가능 저소음화 기술개발' 연구가 11월 21일 국가 R&D 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철도 소음 · 진동저감 연구에 착수했다.

연구과제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철도기술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철도 운행 시 레일 표면 거칠기에 따라 발생하는 진동을 저감하기 위한 레일 관리기술과 선로변 소음 차단을 위한 최적의 방음벽 구조개발 및 강교량 소음 · 진동저감 기술개발이 포함된다.

이 연구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철도시스템에 반영되면, 철로변 방음시설 설치비용이 기존 대비 약 30%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원은 그간 방음벽을 사용해 소음을 저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원천적으로 철도 소음과 진동을 최고 10dB까지 낮추는 기술을 개발하는 등 선로변 거주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호남고속철 오송~익산간 전차선 가선 착수

- 전차선 가선으로 호남고속철 개통 준비 순항 중 -

충청본부(본부장 노병국)는 11월 21일 호남고속철도 오송~익산구간 중 오송역에서 공주역 방향으로 전차선 가선작업을 착수했다.

오송~익산구간은 총 89.7km로 토공/교량이 61km(69%), 터널이 28.7km(31%)이며 전차선로 공사의 주요 시공 물량은 전차선로 지지전주인 전철주 3600개소, 급전선 169km, 전차선로 230km이다.

고속철도 전차선로 가선공사는 장대레일 위에서 기계화 시공 장비인 전용 가선작업차를 이용하여 전차선과 조가선을 동시에 가선하는 작업으로 1일 평균 3섹션(약 3km) 작업이 가능하다.

본 공사는 지상 약 8m 높이에서 시행하는 고소 위험 작업으로 작업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안정적인 고소작업이 가능한 고소작업대가 부착된 전철모터카와 가선작업차를 투입하였고, 더불어 숙련된 기능공들을 투입하여 안전하게 수행 중이다.

현재 오송~익산구간 전차선로 공사의 전체 공정률은 약 45%로, 가선 공정은 KTX에 전력을 전달하는 전차선로로 가선이 완료되면 KTX 시험운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본부는 오송~익산구간의 전차선로 가선 및 잔여 공사를 2014년 6월까지 완료하여 KTX 시운전과 호남고속철도 적기 개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게시판

주요뉴스('13.12.2~'13.12.8)

□ 수원남부 지하철시대 열렸다 (경인일보02)
□ KTX - 공항철도 연계 운행 연기 (인천일보06)
□ 신호체계 오작동...출발 못한 '공항行 KTX' (한국경제02)
□ 동해남부선 폐선 '아쉬운 작별' (동아일보16C)
□ '남부내륙철도' 예타 조사 문경~상주~김천구간 포함 (대구일보01)
□ 대곡~소사 또 광역철도 지정 재정난 '사업 장기표류' 위기 (경인일보02)
□ '진통' 행복주택 지구 5곳 일괄지정 추진 (매일경제10)
□ "공기업 빚, 국가가 모두 떠안으면 안돼" (국민일보06)
□ 연휴 뉴욕열차 탈선 4명 사망 (중앙일보20)
□ 122km 세계 최장 해저터널 건설 (서울경제12)
□ 철도시설공단 김포도시철도 시공사 선정 (파이낸셜30, 대전일보09)
□ 철도시설공단 '인력양성 우수' (충청투데이09)
□ KTX, 인천공항 운행 내년 2월로 연기 (경향신문16)
□ 동해남부선 우동~동부산관광단지 구간 폐쇄 (한겨레12)
□ 신계동 철도교량 철거… 한강로 침수피해 줄인다 (동아일보16)
□ 철도노조 "9일부터 민영화 반대 파업" (동아일보12)
□ 朴대통령 "약속대로 동해안 교통망 확충 최대한 지원" (영남일보03)
□ 정부 압박에… 부채 감축 짜맞추는 공공기관 (한국일보06)
□ 속도 내는 무인지하철 시대… 8호선도 검토 (중앙일보14)
□ 뉴욕 열차 탈선 "과속 · 브레이크 결함 가능성" (국민일보11)
□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본격 추진 (대구일보02)
□ 철도시설공단 따뜻한 겨울 선물 (중도일보19, 대전일보20)
□ 멈춰선 철도사업 국회서 시동거나 (경인일보01A)
□ 행복주택 14만가구로 줄인다 (세계일보01)
□ 철도부지 활용 부족한 도심 공간 창출 (영남일보03)
□ 뉴욕 열차 탈선, 규정 3배 과속 탓 (중앙일보21)
□ 단양 도담~경북 영천 복선전철 기공 (한국경제32, 영남일보01)
□ 원주~강릉 철도 평창 거문터널 관통식 (국민일보10A, 동아일보14A, 강원일보02, 강원도민01)
□ 철도공단 전국 VE 경진 최우수상 (충청투데이22)
□ 충청권 철도망 이달 예타 신청 (대전일보01)
□ 행복주택 지구 지정, 주민 반발로 보류 (국민일보15)
□ 기재부 목청 높이지만 공공기관들 '뭉그적' (서울신문08)
□ 공기업 적자 투성인데… 왕십리역엔 역장이 3명 (한국일보10)
□ 공기업 개혁과 자원개발 실종사건 (서울경제38)
□ 춘천 도심전철 하부 공원화 (강원도민10)
□ 철도시설공단 'VE 경진대회' 최우수상 (국민일보10A)
□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조기 추진 파란불 (강원일보03)
□ 정부, 철도노조에 사실상 백기… KTX 자회사案 대폭 후퇴 (조선일보14)
□ "빚 많은 공기업, 번 만큼만 써라" (조선일보B02)

영남본부, 정부3.0 정보공개 앞장서

- QR코드를 이용한 공사 정보 실시간 공개 -

영남본부(본부장 이태균)는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 및 국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지향하는 정부3.0 패러다임에 부응코자 QR코드 검색시스템을 통해 공사 정보를 공개한다.

QR코드 검색시스템은 각 현장별 특성에 맞춰 모바일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현장 주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QR코드를 게시하여 통행하는 사람들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모바일 홈페이지는 매월 업데이트하여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SNS를 통해 국민들의 알권리 및 신뢰를 충족시켜 민원발생 억제 등 사업추진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2013년 11월 현재 각 사업별 1개 공구씩 시범 선정하여 QR코드 검색시스템이 운영중이며,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2014년부터 영남본부 관할 5개 사업* 전 현장에 확대 시행된다.

* 경부고속(2단계) 대구도심, 부산~울산 복선전철, 울산~포항 복선전철, 포항~삼척 철도건설, 동대구~영천 복선전철

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정보 제공과 소통을 통해 관련기관 및 지역주민이 철도건설 공사에 대해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호남본부, 철로변 아동센터와 철도사랑 문화체험 가져

호남본부(본부장 김계웅)는 11월 30일 순천 조곡동아동센터 초등학생 15명과 함께 여수 일원에서 해양레일바이크 탑승 및 아쿠아플라넷 견학 등 철도사랑 문화체험행사를 가졌다.

본부는 작년 11월부터 철도주변 소외계층을 위한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회씩 방과 후 공부방에 지도교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공헌기금으로 아동신문과 간식비용도 지원해 오고 있다.

본부 관계자는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이 사회의 중요한 일꾼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호남본부 한상우 기자〉

호남본부, 교통안전 및 청렴캠페인 전개

호남본부(본부장 김계웅)는 11월 27일 순천역 광장에서 청렴문화 확산 및 철도 교통안전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본부는 지난달 말 한국투명성기구 광주전남본부(대표 김범태)와 '투명하고 건강한 사회 건설을 위한 반부패 · 청렴실천 상호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2013년도 청렴도 평가 최우수기관 도약을 위해 이날 직원 모두가 새롭게 각오를 다졌다.

또한 시민들에게 철도건널목 통행요령 안내와 건널목 통과 차량 우선멈춤, 전차선 감전사고 예방 등 안전계도 전단지와 '철도안전행동요령'이 새겨진 생활용품을 배포했다.

한편 철도건널목 사고는 공단 등 관련기관의 노력으로 2006년 26건에서 2012년에는 14건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호남본부 한상우 기자〉

경조사

- 호남본부 건설/기술처 이희성 차장 부친상
  - 발 인 : 2013년 12월 2일
- 경영지원실 조창근 부장 장남혼
  - 일 시 : 2013년 12월 7일 오후 14시
- 영남본부 건설/기술처 권혁환 부장 빙모상
  - 발 인 : 2013년 12월 5일

KR상생뉴스(주간) 발행인 김 광 재 발행일 2013. 12. 9(358호) 편집인 성 영 석 기사문의 (042) 607-3087